

AUTHOR 최덕성

TITLE 한국장로교회 개혁신앙운동 : 1945-1954

IN 개혁신학과 교회

vol.7 no.1 (September, 1998): 143-186

한국장로교회 개혁신앙운동 : 1945-1954

최 덕 성

“역사”란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역사가의 주관적인 재구성(reconstruction)이다. “역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event)이지만 과거의 모든 사건이 다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건”이 역사가 된다. 역사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단순 기록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일컫는 것은 역사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사건들을 자신의 입장, 관점, 신념에 따라 무게를 달아 파악, 해석, 전달 혹은 기술한 것이다.

역사가 과거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역사가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기록된 모든 역사가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모든 평가가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는 그것의 주관적 본질 때문에 역사가의 평가 기준 혹은 척도에 따라서 자주 왜곡된다. 약자 보다는 강자, 패자 보다는 승자, 소수 보다는 다수, 무식한 자 보다는 식자(識者)의 입장에서 강자, 승자, 식자에게 유리하게 기록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교회사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고대교회의 도나투스주의, 중세기의 왈도파, 종교개혁기의 재세례파, 현대의 청교도 등 소수 신앙 무리들(Dissenters)에 대한 당시 기득권 집단의 평가와 기술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한국교회사에서의 아전인수격 기록 및 평가의 대표적인 한 예는 해방 후 10년간의 한국장로교회사, 특히 제1차 분열에 관한 역사 기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출옥성도들과 고려신

학교 중심으로 진행된 개혁신앙운동과 이와관련된 고신교단을 “분리주의”, “독선주의” 그룹으로 단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¹⁾ 최근에 출간된 한국교회사 관련 어느 박사학위 논문도 고신교단을 “교백적 분리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신교단 설립과 관련된 개혁신앙운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²⁾ “고신분열”을 영도권 쟁탈전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영도권 다툼의 결과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출옥성도들(고신)은 그 영도권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장로교회 1차 분열이 있기까지의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를 “교회재건운동,” “참회운동,” “진리운동”으로 일컬어진 개혁신앙운동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일제치하에서 신사불참배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운동의 핵심과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 진행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광복 후의 한국장로교회 갈등의 기본적인 성격은 신학적인, 특히 교회론적인 것이었다.³⁾ 제 1차 분열은 교

- 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한국민족교회형성과정사」 (서울: 기독교서회, 1973), 369; 김광수,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원, 1978), 114-15; 김양선, 「한국교회해방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종교교육부), 146이하, 특히 164; 김재준,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Reformed and Presbyterian World* (Mar. 1964): 23; 정하은, “Eighty Years History of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A Look at Nationalism and Socialism,” *Korea Struggle for Christ* (Seoul: CLSK, 1965), 45.
- 2) 연규홍, “한국장로교회와 칼빈신학사상: 한국장로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한신대학교 신학박사학위 논문 (서울: 도서출판 한빛, 1996).
- 3) 한국장로교회의 제1차분열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인 줄고, “고신교단 설립의 교회론적 기초”(「하나님 앞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개교 50주년 기념논문집」, 부산: 고려신학대학원출판부, 1996: 141-86)을 참고하라. 제 1차 분열과 고신교단의 태동에는 강력한 교회론적 주지(motif)가 작용하고 있었고, 교

회를 영적, 신앙교백적 공동체로 여겨 신사참배의 범죄를 공적참회로 청산하는 것이 한국장로교회 재건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 소수와, 이 소수에 반대하여 공적참회를 거부하며 제도적, 조직적 복구에만 관심을 가졌던 다수 사이의 갈등이 빚어났다. 분리주의적, 교권적 발상을 가진 다수가 장로회 치리회의 질서와 원리에 충실하려는 소수를 교단밖으로 축출함으로써 분열이 고착되었다. 출옥성도들 중심의 신앙운동은 근본적으로 개혁신학에 입각한 신앙과 신학과 교회의 재건에 초점이 있었다. 한국장로교회 본래의 개혁주의적 정체성을 되찾으려했던 신앙운동을 “독선주의,” “분리주의,” “영도권 쟁탈”이란 용어와 동일시하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것 만큼이나 잘못된 주장이다.

최근에 순교자 주기철 증후군(syndrome)이 나타나면서 순수 신앙, 일사각오, 순교정신이 고조되고 있다.⁴⁾ 그의 순교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더불어 그가 왜 순교했으며, 순교하게 된 사건과 관련된 한국장로교회의 과거사 청산 및 과거의 범죄에 대한 자성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광복 50년이 넘도록 주기철을 순교로 몰고간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통절한 자성과 역사청산이 없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과거의 수치스런 역사청산을 부르짖는 때에 한국장로교회도 늦지만

고, 고신교단은 장로교 본래의 개혁주의적 정체성, 신학적, 교회론적 전통을 확고히 하려했던 신앙운동의 열매라는 점을 논한다.

- 4) 주기철의 목사직 복권이 통합측 서울동노회에 의해 총회에 상정되었다고 한다. 교회의 직임은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적인 선언이지 작위(爵位)수여가 아니다. 복권 운운은 목사직을 작위로 여기는 발상의 산물이다. 해방 직후에는 주기철과 동일한 이유로 제명당한 한부선 선교사에게 장로회 총회는 “해벌”(解罰)을 명한 웃지못할 일이 있었다. 해방된 교회에서 이교신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자에 대한 장로교회의 “해벌”이나 “복권”은 교회가 그 실책과 죄악을 도리어 정당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스스로 기독교회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난 날의 수치와 백귀난행(百鬼亂行)의 역사를 청산하고 일본 신도주의의 “에첩”이 아닌 “한국 기독교”로서의 주체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방적으로 오도된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를 바로잡아 기록하는 것 외에도 한국장로교회의 성격 파악과 교회갱신의 방법 및 방향 제시에도 일조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상 미증유의 분열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을 중시하는 신학이 결여되어 있고 분열을 수치로 여기고 누우치는 겸허한 자세가 결여된 한국교회의 현 상태가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한국장로교회의 진정한 일치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교회 갈등과 분열 문제를 다루는 역사 기록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이 연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리 평화적(irenic)으로 제시된다고 해도 몇몇 민감한 반응이 뒤 따를 것이다. 교회는 족보나 연대기를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절대적 의미에서의 “객관적” 기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정치사, 사회사, 사상사, 문화사 같은 것이 아니라 규범과 전통을 가진 기독교회사이다. 특히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교유의 신학과 치리회의 표준(헌법)을 가지고 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실증주의적 역사 접근 방법이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보다 더 철저한 실증주의적 방법과 비평적 접근을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는 초연성을 가지고, 열(熱)보다는 빛 가운데서, 3자적인 입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교회갈등의 다루는 이같은 연구와 상술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관련된 지도급 인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용어의 선정이다. 잘못된 용어 사용은 자칫 사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적잖은 주의를 기울였으나, 불가피하게 출옥성도, 교권주의자, 맥락주의자, 배교-변절자(lapsi) 등 몇몇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교회사에서 항용 사용되어오고있는 단어들이며, 사실에 적합한 용어들이지만, 당사자들은 다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1. 한국장로교회 재건운동: 배경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자 폐쇄되었던 교회들의 문이 열리고, 해방의 종소리가 컷가를 울렸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웃음과 더불어 샘솟음쳤다. 철창 옥문도 일제에 항거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었다. 모든 복수심을 삼켜버린 백성들의 기쁨은 참으로 순수했다. 한국 땅에 살아남은 어느 일본인도 한국인의 손에 살해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사상 유례가 없는, 특기할만 한 일이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구금되어 옥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기쁨은 더욱 컸다. 일제 황국화(皇國化: Japanization) 정책에 항거하는 기독교인들을 집단 학살 시키기로 계획되었던 3일 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이다.⁵⁾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감격과 더불어 무너진 교회의 재건을 시도했다. 1943년 5월 5일에는 각 교파가 그 고유한 명칭을 박탈 당했으며, 장로교회는 “조선내 각 신교파를 합동하자”⁶⁾는 경성노

5) 일본은 1945년 8월 18일에 옥중의 기독교인파 사상범을 모조리 죽이고, 9월에는 대학생과 중학생을 죽이고 10월에는 사상적으로 일본화되지 않은 모든 조선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 사실은 미처 태우지 못한 일경의 비밀서류가 해주경찰서에서 발견됨으로써 폭로되었다(최훈, 「한국계전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제2판, 1989, 89).

회장의 헌의가 있는 다음 해에 “일본기독교장로교단”으로 개편되었다. 1945년 7월 19일에는 개신교 모든 교파들이 통합되어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예속되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사라졌다. 장로교 내에는 친일행각으로 영광을 누리던 자들과 강요에 못이겨 일본에 굴종하고 신사참배를 하던 자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목회권을 박탈당하고 면직된 목사들이 모두 교회 재건 혹은 복구를 시도했다.

한국장로교회 복구의 방향은 대략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교회의 제도와 조직의 복구로서 일제시대에 폐쇄된 장로교회를 재조직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외형적인 복구에 관심을 가졌던 자들은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에 따른 영적, 신앙고백적 재건은 무관심했다. 둘째는 출옥성도들과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중심의 영적, 신앙고백적인 복구였다. 공적 참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성을 회복하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신앙운동이었다. 한국장로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했지만, 주도권은 주로 외형적 복구에만 관심을 가진 배교-변절자들이 쥐고 있었다.

광복을 맞아 복구된 한국장로교회가 “고신분열”이라고 일컫는 제 1차 분열⁶⁾까지의 7년간의 상황은 로마제국의 테시우스 황제 치하의 박해(249-251) 후에 일어난 노바투스파 논쟁과 반세기 후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후에 일어난 도나투스파 논쟁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박해기간 동안 박해를 당한 이유도 동일했다. 로마의 신들에 대한 예배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은 일본 조상신들에 대한 숭배와 일본 왕을 신으로

로 숭배하는 일과 일치했다. 모두 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십계명의 제 1, 2, 3계명을 어긴 사건이었다. 모두 다 국민의 의무활동(civil activity)으로 강요되었다.

다른 것은 주로 세 가지였다. 첫째는 로마 치하에서는 교회가 우상숭배를 하기로 결의하지 않았지만 한국장로교회는, 비록 이 민족 지배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총회의 결의로 조직적으로 행했다. 둘째는 로마치하에서는 우상숭배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회가 목회자를 면직시키거나 성도들을 제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장로교회는 제명시키고 목회권을 빼앗았다. 셋째는 박해가 끝난 후의 고대교회의 갈등은 박해 동안에 돈으로 우상숭배 증명서를 구입한 자들 혹은 박해 기간동안 배교의 표시로 성경을 관리에게 내어준 자들(lapsi)을 둘러싼 문제였다. 우상숭배자-배교자들의 입교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갈등은 우상숭배자, 배교-변절자들의 공적참회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토속 종교인 “신도”(新道)를 핵심으로 하는 종교적 국가주의(Shinto religious nationalism)의 제의(祭儀)였다. 일본 조상신 및 이 조상신들의 도성인신(道成人身)으로 숭앙된 일본 왕을 현인신(現人神) 혹은 현어신(現御神)으로 예배하는 활동이었다. 참배는 주요 도시에 세워진 신사(神祠)에서 행해졌으며, 나중에는 “天照大神之宮”이라는 뜻을 써 붙인 “가미다나”(神棚)라는 이름의 옮길 수 있는 조그만 “신사”들을 가정 집과 교회당에 설치하고 그것을 향해 절하고 예배했다.

한국교회는 한국정신과 한국혼을 말살하기 위한 황국화 정책의 마지막 수단인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직전에 “가미다나”를 향해 절하고, 그 앞에서 일본 국가를 부르고 때로는 기도를 드리고, “가미”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서울의 한강 혹은 부산의 송도 앞

6) 「제30회 총회록」, 40.

7) “고신분열”은 “독노회”로 분열과 친일자들 중심의 불법적 경남노회 분열 다음에 오는 세 번째 분열이지만, 앞의 두 분열이 미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1차 분열로 일컬어지고 있다.

바다에서 “미소기바라이”를 행했다. 이것은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신도침례”(新道浸禮)로서 신도 사제들이 집행했으며 “가미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는 “신앙고백”과 더불어 시행되었다. 일본국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도 같은 맥락에서 행해졌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애국적인 행위라는 감언이설로 한국교회의 실행을 강요했다. 그러나 그것의 종교적—이교적(cultic), 제의적(祭儀的) 성격은 너무도 분명했고, 우상숭배, 즉 배교행위 그 자체였다.⁸⁾

한국장로교회는 천주교, 안식교, 감리교, 성결교 등에 이어 제 27회 총회(1937)에서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가결했다.

아등(我等)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씨(以)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려행(勵行)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期)함.⁹⁾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이것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솔선수범” 그것을 실천했다. 총회록(제 28회부터 제 31회)은 한국장로교회가 어떤 백귀난행(百鬼亂行)을 저질렀는가를 보여준다. 교회마다

8) 평양의 장로회신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신사참배의 배교적, 우상숭배적 성격에 대한 응변적인 증거이다. 신사참배의 종교적, 제의적, 배교적 성격과 본질에 관해서는 필자의 근간 예정인 “신사불참배신앙과 신학”: *The Predominance of Reformed Orthodoxy in Korea* 그리고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29 (Apr. 1940): 165-66; 일본기독교개척교단, “죄 고백과 사죄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신) 총회록」(1991), 54-55; Richard Baker, *Darkness of the Sun* (Nashville: Abingdon-Cokesbury, 1954), 67 등을 참고하라.

9) 「제27회 총회록」, 9.

전승기원예배를 올리고, 국방헌금을 바쳤다. 위문품을 모으고, 앞 다투어 위문행사에 참여했다. 애국기(愛國機)헌납운동을 벌였고, 이를 위한 기성회를 조직했으며, 정인과 목사가 위원장이 되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선장로회기”라는 이름의 비행기, 여러 대의 자동차, 그리고 3,000여개의 교회당 종을 병기 제작에 쓰도록 헌납했다. 예배당을 병기 제조공장, 군인환송 대합실로 사용했으며, 신학교는 황도정신연성소(皇道精神鍊成所), 즉 군사훈련장으로 내주었다.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칭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거나 믿고 고백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최후승리, 재림신앙, 내세왕국, 여호와 유일신을 부인케 했다. 성경과 찬송가 중에서 유대민족에 관계된 부분인 출애굽기 등과 미래왕국에 대한 예언을 담고있는 다니엘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삭제되었다. 이 부분들을 떼어버리든지 먹칠을 해버리도록 했다. 나중에는 4복음서 이외의 성경 전부를 말소시켜 보지 못하게 했다.

목사들은 일본귀신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시국인식 순회 강연”을 하려다녔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동료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설득하려 다녔다. 나중에는 목사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동료 교역자와 신도들을 찾아다녔다. 발견 즉시 “이 자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고발하여 형무소로 끌려가게 했다.¹⁰⁾ 총회 산하 노회는 총회가 결의한 사상을 시행하지 않는 신사참배에 대한 항거자들을 제명시켰다. 목사직을 파면하고 그들의 가족을 사택으로부터 내쫓았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장로, 집사들의 직분을 정직시켰다.

10) 예컨대, 최훈, 「한국재건교회사」(서울: 성광문화사, 1989), 64; 심군식, 「헤와같이 빛나리: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목사의 생애」(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90).

변절한 지도자들의 기독교회를 통한 신도실천(新道實踐), 친일행각의 작태는 극에 달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는 일본국가가 봉창되는 가운데 (일본)국기경례, 궁성요배, (일본)순국선열에 대한 묵도, 황국(일본)신민선서 등이 행해졌다.

이같은 형극의 수난 속에서도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한국 기독교를 순수하게 보존한 신앙의 용사들이 있었다. 신사참배에 일시적으로 항거하다가 투옥된 자가 2,000명이 넘었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70명, 옥고로 출옥 즉시 사망한 자가 50명, 사경의 옥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30명 남짓 된다. 한국교회가 일본 신도주의의 애첩이 되어 회롱당하고 있을 때 순수 “한국 기독교”는 제도나 외형적 조직이나 교회당이 아닌 형무소의 차거운 세멘트 바닥에서 보존되고 있었다. 참대꽃이로 손톱을 찌르고, 네모난 각목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누르고, 가죽끈으로 후려쳐 피투성이가 되고, 고추가루를 탄 물을 주전자에 담아 코에 부어 혼수상태가 되고, 머리카락을 묶어 온 몸을 천정에 매달고,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어 소생시키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형극의 고문실에서도 “한국교회”의 불꽃은 살아남았다.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말린 호방덩굴을 먹으라고 주는 참혹한 감방에서, 그리고 추위로 얼어붙은 산 속의 암혈과 토굴에서 생명력있게 살아남았다.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인들을 갈라놓았다. 친일자와 반일자, 맥락주의적 신자와 정통주의 신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애국자(일본)와 애국자(한국), 타협자와 항거자, 기회주의자와 일사각오자, 배교·변절자와 순수신앙인들을 갈라놓았다. 옥중과 토굴에서 간직되었던 순수 한국 기독교회와 형식적인 한국교회(일본 기독교)를 갈라놓았다. 신사참배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충성, 헌신, 신앙의 깊이를 시험하는 형극의 시험대(test trial)였다.

박해 기간 동안의 교회 지도자들 및 성도들의 처신은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일제의 요구에 저항하고 끝까지 반대하여 고통을 당하고,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순교한 자들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출옥성도들”¹¹⁾로 불려졌다. 둘째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로부터 면직, 제명되어 산간 토굴에 숨어살거나 혹은 초야에 묻혀 살았던 사람들이다. 셋째는 자의반 타의반 타협을 하면서 적당하게 순응한 자들이다. 장로교인 다수는 이 부류에 속했다. 넷째로는 크건 작건 간에 일제에 적극적으로 영합한 사람들이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교권을 장악하고 입신출세하려는 자들이었다. 첫째와 둘째 그룹은 이교신을 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된 자들이고, 셋째와 넷째 그룹은 모두 우상숭배를 한 배교·변절자(lapsi)였으며, 넷째 그룹은 대부분 친일적인 맥락주의자들이었다.¹²⁾

일제통치의 마지막 몇년 동안 한국교회의 지도력과 통제권은 보수적인 장로교인들의 손에서 맥락주의자들, 즉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로 일컬어졌던 “신신학자”들 혹은 그들을 입장을 수용하거나 지지하는 자들의 손으로 옮겨갔다. 평양에 소재한 장로회신학교가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로 폐교당하자 신도국가주의(Shinto nationalism) 혹은 황국신민주의(皇國臣民主義)의 깃발 아래에서 친일, 맥락주의자들은 평양과 서울에 신학교들을 세우고 교회 권력을 쥐었으며, 한국장로교회를 신도군국주의의 애첩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영광스런” 불행의 시작이었다.

11) “성도”란 “성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통칭이다. 한국교회는 신자를 “성도”로 호칭해 왔다.

12) “맥락주의자들”은 종종 “자유주의자”로 명명되어 왔으나 이것은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영어로는 contextualists, accomodationists로 옮길 수 있다. 그 이후에 등장한 한 신학유형인 contextualism(상황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신사참배 문제는 광복 후의 한국장로교회의 성격, 방향, 특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신앙과 교회의 영적, 고백적 본질과 개혁주의 신학 및 장로교적 정체성에 대한 신실성을 시험하는 시험대였다. 광복이 되자 다수의 장로교인들은 복구된 장로회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로 긴장했다. 영도권 싸움의 두 기둥은 일본도의 권위 아래서 교권을 쥔 맥락주의자들과 그들로부터 영도권을 되찾으려는 보수적 장로교인들이었다. 배교-변절자들(lapsi) 간의 교권다툼이었다. 출옥성도들은 이 영도권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었다.¹³⁾ 교회의 분열을 원치 않는 다수의 출옥성도들과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공적참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축출을 당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이라는 새로운 교단을 설립했다.

다수의 장로교인들은 신도주의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기 이전의 한국장로교회, 즉 친일, 신사참배, 변절, 배교로 더럽혀지기 전의 한국장로교회가 갖고 있던 신학적, 신앙적 전통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로교회 제 1차 분열이 일어나기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친일자들, 맥락주의자들의 독무대나 다를 바 없었다.¹⁴⁾ “옛 신앙”으로의 복귀현상은 한국장로교회가 세

13) 김양선, 247. 한편, 김양선은 출옥성도들 중심으로 새로이 출범한 고신교단이 “현 장로교 총회와는 신조상 혹은 교리상 상위(相違)가 있는 것은 아님으로 분열의 이유가 영도권 문제에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p. 164). 이것은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 논점일탈의 주장이다. 신조상, 교리상의 기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실행에 있어서는 매우 상반된 증거를 드러냈다. 배교-변절자들의 “신행의 불일치”에 대한 출옥성도들의 실행일치, 영적쇄신, 장로교회로서의 신앙고백적 통일성, 개혁신앙과 신학의 신실성 등에 대한 신앙고백적 주장을 “영도권” 때문인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아래에서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4) Havie Conn,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29.2

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혁과 정통주의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역사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였다.¹⁵⁾ 하지만 다수의 장로교인들은 한 편에서는 친일, 맥락주의자들에게 도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신학적 토대를 가진 출옥성도들(고신)을 축출하기 위해 그들과 손을 잡았다. 재건운동, 참회운동, 진리운동으로 일컬어진 개혁신앙운동의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생명력있게 진행되어 갔다.

2. “교회재건 원칙들”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은 정치적 상황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 북한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국가재건의 기회를 정치권력을 얻을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었다. 윤하영,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민주당”이 만들어졌다. 조만식, 이윤영이 주도하는 “조선민주당”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 활동은 점차 김일성 정부를 지지하는 조선기독교연맹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북한기독교인들은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다.

남한의 교회는 미군 군정 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렸으나 정치문제나 사회 윤리 등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본래 이같은 활동에 관심이 적은 보수적 기독교인들 만이 아니라 으레히 관심을 가졌을 법도 한 진보주의자들도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던 것은 주목할만 하다.

(Nov. 1966): 136-178.

15) 줄저, *The Predominance of Reformed Orthodoxy in Korea*(근간예정)을 참고하라.

한편, 일제의 압박 아래서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자들은 옥중에서 품었던 교회재건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종전(終戰)과 함께¹⁶⁾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한 약 20명은 순교한 주기철 목사가 섬겼던 평양산정현교회에 약 2개월 머물면서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공휼을 찬송하며, 한 달 동안 부흥회를 가졌다. 고문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으며, 남자들은 모두 수인처럼 강제로 삭발을 당한 채였다.

교회재건 구상과 함께 논의된 핵심적인 문제는 신사참배의 범죄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며, 교회를 어떻게 출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출옥성도들은 교회재건을 영적쇄신과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들의 결론은 데시우스 황제 박해(250-251) 동안에 돈을 주고 우상숭배-황제숭배를 했다는 증명서를 구입한 변절자들 문제에 대한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의 주장과 원리상 일치했다. 그것은 변절자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의 교제(fellowship) 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그렇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출옥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앙고백적 순결성 회복을 위한 공적참회의 필요성과 총회적 결의를 거쳐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역시 공적인 결의와 참회를 통해 매듭지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⁷⁾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참회를 해야 비로소 하

16) 끝까지 항거하다가 평양,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풀려난 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기선, 고흥봉, 최정민, 한상동, 주남선(주남고), 손양원 (이상 목사), 김런희, 김화준, 서정환, 조수옥, 이현숙, 최덕지, 손명복, 이주원, 방계선(이상 전도사), 김형락, 박신근, 장두희, 양대륙, 안이숙, 이광록, 오윤선, 김두석, 김영숙, 엄애나, 이술연, 김야모 등이다.

17) 박운선,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어디로 가나?” (부산: 고려신학교 학우회, 1950), 2.

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다.

출옥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한국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들¹⁸⁾을 제시했다. 다섯 항으로 된 강령은 주로 공적인 참회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1. 교회의 지도자(목사 혹은 장로)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했으므로 권징(勸懲)의 길을 취하여 통회정화(痛悔淨化)한 후 교역에 나아갈 것.
2.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자복(痛悔自服)할 것.
3. 목사와 장로들이 권징 아래 있는 동안에 (휴직 중에는)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도록 할 것.
4.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모든 노회들 또는 모든 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이것을 실행하게 할 것.
5.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교회재건 원칙들”에 대한 한국교회사가 민경배의 평은 “자책과 통회의 요청은 심판의 인상이 짙었고, 그것은 자기의 무한한 의와 결백을 전제하면서 신의 대행을 자처했던 이단심문의 중세기를 상기케 했다”는 것이다. “또 평신도가 교회의 예배, 곧 말씀과 성례의 집행을 가능하다고 단정한 논리는 전혀 근거없었다. 그것은 안수로서 계승되는 사도적 전통의 신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은총의 객관성의 모체인 교회의 힘에 윤리적 정결과 신앙적 영광을 앞세웠다고 하는 모순을 가졌다”¹⁹⁾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한국장로교회에는 매우 이질적

18) 한상동, “현대대한교회에,” 「파수군」 2 (1949, 봄): 19-20; 김양선, 45.

19) “한국교회 25년사: 1945-1970,” 「한국기독교연감 1972」 (서울: 한국교회협의회, 1972), 22.

인 것이다. 영국에서 잠시 교육을 받은 바 있는 그의 평가의 척도는 감독주의이다.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장로교회에는, 특히 목사가 많지 않았던 당시에는,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아주 흔했다. 교역자들의 상당수가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들었다. 성례는 6개월에 한 번씩 거행했다. “사도직 계승권”에 대한 민경배의 이해는 로마교적이다. 그는 신앙고백적 개념의 “사도성”을 가르치는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론에 무지했던 것 같다.²⁰⁾

김영재 교수는 “재건원칙들”이 “무슨 법 조항처럼 짧게 쓰여졌으며, 신학적으로 내용의 충실성이 부족했다”²¹⁾고 지적한다. 신학적으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기 보다는 그것을 자상히 설명하는 형식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학, 특히 교회론적 원리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교회재건 원칙들”의 결함을 굳이 지적하자면 참회해야 할 자들의 심리와 본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백문 형식으로, 그리고 3인칭 “우리”라는 말로 시작하는 동리 수사법으로 쓰여졌다면 “독선”이란 오해를 다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교회재건 원칙들”은 출옥성도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절자들, 즉 “의인들”이 “죄인들”을 위해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구조적인 오해와 비난의 소지를 갖고 있었다. 변절자들이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들”이란 점을 고려하고, 불한당 만난 이웃으로 여겨 이해, 겸손, 인내로 약한 세정에 함께 목매우는 참여의 사랑을 설득력있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다. “당신들은 나

20) 민경배는 감독주의 척도로 장로교회의 문제를 평가함으로써 “원칙혼동의 오류”(fallacy of applying a wrong principle)에 빠졌다.

21) 「한국교회사」(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240.

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50.20)라는 식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돌리면서 변절자들을 끌어앉고 함께 울면서 함께 사죄를 구하는 고백문으로 작성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재건 원칙들”을 제시한 자들은 김양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명을 바쳐 수호하던 교회의 재건에 누구보담 앞장서서 헌신분투할 각오가 있었고,” 교회를 재건하고자 한 것은 “교권적 야심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²²⁾였다. 아래에서 살펴 볼 것이지만, 출옥성도들(고신)은 재건파와는 달리 변절자, 친일자들을 “저들”로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대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내쫓고 한국교회를 일본의 애첩으로 만든 “저들”을 형제로 삼아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다. 한국교회의 지난날의 잘못을 함께 가슴 아파했다.²³⁾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리고 영적, 신앙고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공격참회가 필듯하다고 보았다. 고신 교단이 출범하면서 신사참배 죄에 대한 연대 책임감을 갖고 얼마의 기간동안 대제사장적인 참회를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아래에서 소개할 것이지만, 교회분열을 반대한 노력들은 이같은 출옥성도들의 의지를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가 설득력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지 못했다.

“독일 기독교인들”은 전후(戰後)에 스투트가르트죄책선언서(Stuttgart Affirmation of Guilt)을 발표했고, 성직자들은 상당기간의 공격참회권징 기간을 가졌다. 나찌 정권 하에서 교회

22) 김양선, 147.

23) 심군식, 「해와같이 빛나리」, 260, “고신교단출범 선포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제1회 총회록」(1952) 등을 보라.

가 정부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인도적 정권에 아부했던 과거행위를 참회한 것이다. 이 고백문에는 다음의 문구가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나의 죄, 너무나 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²⁴⁾

이 고백문은 나찌 정부에 협력하던 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위 문구는 히틀러 치하의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의 지도자로서 옥고를 치른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öller)가 1945년 8월에 트라이자(Treysa)의 교회 집회에서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재건 원칙들”을 고백적으로, 동아리법으로, 설명형식으로 작성했다고 해서 해방 후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친일 지도자들에게 참회의 의지가 있었다면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출옥 성도들의 “교회재건 원칙들”이 어떤 문안으로 작성되었든간에,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간에, 일련의 참회고백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의 백귀난행(百鬼亂行), 친일행각, 일제에 신앙적으로 항거한 동료 교역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잔인무도하고도 비정했던 활동들²⁵⁾에 대한 참회문서한 장이라도 남겼을 것이다.

24) *Kirchliches Jahrbuch für die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1945-1948*, Gutersloh, 1950, 7-8; John S. Conway, “How Shall the Nations Repent? The Stuttgart Declaration of Guilt, October 1945,”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38.4 (Oct. 1987): 621.

25) 「총회록(제27회-제31회)」을 참고하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941년 4월

출옥성도들은 교회재건 원칙의 신속한 시행을 통한 한국교회의 새 출발을 원했다. 그러나 “현직 교역자들 대부분은 통회의 기색은 별로 없고 도리어 교권에 집착되어 자기 지위 확보에 몰두한 모양이 역연(歷然)”²⁶⁾ 했다. “재건 원칙들”은 곧장 반대에 부딪혔다. 1945년 11월에 평북노회가 주관하는 교역자 퇴수회(退修會)가 선천에서 모였을 때 이기선 목사와 더불어 특별 강사로 초대된 동북신학교 교수 박형룡 박사가 그것을 발표했다. 이복의 6개 노회로부터 2백여 명의 목사들이 참석한 자리에는 제 27회(1938) 총회 의장으로서 신사참배 시행안을 통과시켰던 흥택기 목사도 참석했다. 그는 즉각 반기를 들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며,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라고 했다.²⁷⁾ 신사참배 안을 통과시킬 때의 사태를 알고있는 흥택기 목사는 그것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해방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청산 문제를 전혀 생

일 부활주일 아침 산정현교회의 문을 땅치로 못을 박는 비참한 광경을 지켜 보던 오운선 장로는 “평양노회야, 주기철 목사를 파면한 악당들이야, 산정현 교회를 폐쇄시킨 썩은 목사들이 회개하라!”(최훈, 68)고 외쳤다. 그해 11월엔 주기철 목사가 형무소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있는 동안 산정현교회 목사사택은 채필근 목사의 발의와 평양노회의 결의로 친일적 평양신학교의 교수 숙소가 되었다. 주기철 목사의 80세 노모와 가족은 억지로 찌거나 추운 겨울 대문간에 거적을 깔고 3일 동안 대성통곡했다. 이같은 일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친일 행각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6) 김양선, 147; 박윤선,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어디로 가나?* (부산: 고려신학대학원, 1950), 1.

27) 김양선, 46.

각해 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동료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없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의 주장은 개인의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사참배 죄 청산 입장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세 가지의 논의를 먼저 필요로 한다. 첫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흥택기의 주장과 아래에서 소개할 김관식 등의 관점에 따르면 교회란 하나의 조직 혹은 외적인 형태로서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유지되어야 하는 기구(an establishment)에 불과하다. 심지어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포기하고 이교와 절충, 타협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지해야 할 외적인 형태의 어떤 조직이다.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장로교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이같은 개념은 매우 이질적이고 이상한 것이었다. 일본기독교로 개편되기 전후의 한국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권, 신국, 재림, 내세 왕국, 여호와와 유일신을 부인하는 혼합종교 조직이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에 근거한 영적인 몸, 그리스도의 신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영적인 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장로교회 본래의 이해와는 전혀 달랐다.²⁸⁾

한국장로교회는 “신조,” “신앙고백,” “헌법”이라는 장로교 표준과 치리회 규칙을 갖고 있었다.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개혁주의 전통은 권징을 교회의 3대 표지 중 하나로 여긴다. 권징의 실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된다고 본다. 출옥성도들은 칼빈이 가르친대로 권징은 “몸의 ‘근육’이며 이것이 몸의 지체들을 서로 결합시키고 각각 자신의 위치에 있게 한다”(강요. 4. 12. 1)고 생각했다. 권징을 실시하지 않거나 공적 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⁹⁾

28) 줄고, “고신교단 설립이 교회론적 기초”를 보라.

둘째, 교회가 공적인 결의에 의해 공적으로 시행한 사건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개인적인 범죄였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그것은 공적인 결의에 의해 공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사적인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집단적인 “배교”였다.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것이었다. 출옥성도들은 이같은 까닭으로 총회의 결의를 통해 범한 죄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³⁰⁾

셋째, 개인 양심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교회 “재건 원칙들”에 대한 반응을 목격한 박형룡은 “다수의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지만 일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³¹⁾ 해방 후 친일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신사참배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은 해방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북장로교선교부 에드워드 아담스(Edward Adams)는 1939년 7월에 선교본부로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 아마도 90퍼센트, 어떤 한국인들이 추산하는 바에 의하면 98퍼센트나 되는 많은 분들이 그들의 양심을 느그러트려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분들에게 양심의 소리는 약한 것이었습니다.³²⁾

29) 이근삼, “한국교회에 고려파의 존재의의,” 『순교정신계승하자』(부산: 총회교육부, 1977), 38. 칼빈의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교회 생활의 부차적인 문제, 혹은 선택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권징을 표지로 삼지는 않았다는 것이 권징의 엄격한 시행을 부차적인 것으로 혹은 소홀히 해도 좋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0) 박윤선,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어디로 가나?” 2.

31) 심군식, 「제상 끝날까지」, 167.

32) “Korean Mission Materials of the PCUSA(1911-1954), Reports,

출옥성도들은 친일, 배교-변절자들이 8년간이나 행해온 신사참배로 인해 “신앙 양심”이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 참된 회개로 한국장로교회의 “신앙 양심”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장로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아 그것을 한국교회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았다. 이것이 “참회운동”의 동기였다.³³⁾

선천에서 모인 교역자 퇴수회를 계기로 합의된 이북 5도연합노회는 1945년 12월 초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모였다. 변해가는 정치적 상황과 압박을 의식하여 모인 5도연합노회는 6개조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총회를 대행하는 협의기관으로 한다는 것, 옛 헌법을 채택하고, 신학교를 직영하며, 전도회를 조직하고, 연합군 사령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이 결의문은 “진 교회는 2개월간 근신한다”³⁴⁾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무엇 때문에 근신하며, 그것에 대한 치리회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나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된 것은 확실하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임을 해야 한다거나, 적절한 공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미온적이고 막연한 내용이다.

3. 독노회, 재건교회, 봉천노회

출옥성도들 중의 한 명인 이기선 목사는 교권에만 집착하고 참

Filed Correspondance and Board Circular Letters,” *Personal Report of Edward Adams*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26.

33) 한상동, “현하대한교회에”, 『파수꾼』 2 (1949): 20. 참고,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부산: 고려신학대학원출판부, 1996), 20.

34) 김양선, 47.

회와 교회의 영적, 신앙고백적 재건에는 관심이 없는 목사들에게 실망하여 독자적으로 교회 재건을 시도했다. 다른 출옥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기성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교회재건 원칙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원칙에 따르는 교회들을 규합했다. 1946년부터 평북과 황해도 지방에 30여개의 교회를 복구했다. 평양 산정현교회를 위시하여 선천, 신의주, 강계 등지의 이들 교회들은 김일성의 비서였던 강양욱 목사의 획책으로 새로 조직된 조선기독교연맹이 교회의 가입을 강요당하자 이를 신사참배와 맥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여기고, 이북 5도 연합회와는 관계없이, 1949년 5월 중순경에 “독노회”(獨老會)를 조직했다.

독노회는 세칭 “혁신복구파”(革新復舊派)라고 한다. “혁신”이란 한국교회가 일본교단으로 변질했던 요소를 고친다는 뜻이며, “복구”란 한국교회 교인권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일본교단에 가입하여 황민화운동에 열중했던 기독교인들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일본교단의 교인권을 가졌던 과거를 혁신해야 그때부터 진정 조선예수교장로회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제치하의 배교자들은 참된 한국교회의 회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으며 영적인 간음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을 잃었다고 보았다.

혁신복구파는 친일적 요소와 신사참배 문제를 청산하고 한국교회 교인권을 복구하도록 다음과 같은 강령을 내세웠다. (1) 참회에 초점을 맞춘 예배, (2) 3일간의 금식과 기도, (3) 6개월 동안의 친일 및 신사참배에 대한 참회 등이었다. “혁신” 기간에 목사 및 장로는 사임하고, 참회 기간이 만료된 후에 교인은 복구문답을 통해 정당한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목사직은 시무 투표로, 기타 직분은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대로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였다.³⁵⁾ 일정기간의 참회 과정을 거쳐 교인권을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고대교회의 감독 키프리아누스의 견해와 원리상 일치

한다. “독노회” 조직은 한국장로교회의 첫 번째 분리였다. “독노회”는 공산치하에서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한편, 이기선 목사가 교회 재건을 시도하기 전에 북한에는 출옥성도인 김린희 전도사와 박신근 집사를 중심으로 “재건교회”가 세워졌다. “기성교회”와 관계없이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교회는 1946년 1월 초순, 평북 차령관에서 시작되었다. 김린희 전도사는 당시로서 상당한 학식을 가졌으며,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고향에 돌아온 자였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으나 신사참배문제로 학교가 문을 닫자 선천 3봉동교회를 맡아 봉사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신사참배반대 운동을 하다가 순교자 박의흠, 김운섭 전도사를 만나 “신사참배에는 죽음으로써 항거하고, 신사참배하는 교회에는 출입하지 말고, 동지를 규합하여 새 교회 건설에 힘 쓸 것”³⁵⁾을 결의했다. 항상 순교하기를 원했던 “진리의 투사” 김린희는 출옥하여, 차령관교회에 모여 부흥회를 인도했다. 회개와 감격의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만주의 심양 감옥에서 출옥한 성도들과 만주나 산간에서 기도하면서 진리의 신앙을 바로 유지해 오던 경건한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무너진 3천제단”을 재건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북한 각 교회에 재건교회 창설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재건교회 창설에 관한 취지문을 작성하여 북한 각 교회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재건교회”의 설립 예배는 1946년 4월 초순에 평북 선천읍 황금동에서 드렸다. 신의주, 선천, 만포, 평양 등에서 71명의 교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곡 정미소 창고에

서 드려졌다.³⁷⁾ “곡간교회”로 시작한 것은 신사참배를 하던 교회당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참 교회는 신사참배를 행하고도 회개치 않는 거짓 교회의 밖에서 재건되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세워졌다. 이 교회는 1950년 한국전쟁시 까지 67개 교회를 세웠다. 대부분 당회없는 미조직 교회로서 김린희 김신근 두 인물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³⁸⁾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주일에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젊은 부인 6명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나체로 동네 밖으로 축출당했다.³⁹⁾ 야밤에 호출되어 고문 끝에 군중재판에 회부되어 반동분자라는 죄목으로 쫓겨났다. 평양재건교회 담임 이창환 전도사는 김익두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기독교연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통에 처넣어져 동사, 순교했다. 공산정권이 발행하는 “공민증”을 “적그리스도의 표”로 여겨 거부하다가 투옥당해 고문 끝에 순교한 자가 평양에서만 23명 가량이 되었다.⁴⁰⁾ 과거 일제 학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마당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거했다.

한편, 나라밖 만주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봉천노회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신사참배 죄를 청산했다. 선교사 한부선 목사를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명한 바 있는 노회였다. 일본이 항복한 얼마 후 노회의 결의로 목사, 장로, 전도사들이 40일 간의 공적참회권징을 실시했다. 모든 직임을 사퇴하고 통회기간

35) 문화공보부, 「증무편람」(서울: 문공부, 1969), 22; 「한국장로교회사(고신)」(부산: 고신출판사, 1988), 203-04; 김양선, 148.

36) 김린희에심종결서, 제9조, 안용준, 「태양신과 싸운이들」, 상권(부산: 칼빈문화사, 1956), 295.

37) 최훈, 113.

38) 김린희 전도사는 1947년 가을에 월남하여 서울에서 재건교회를 세우고 서울지방에서 재건과 운동을 이끌어가다가, 공산당에 의해 납북되었다.

39) 김문제, 「수진제단 재건교회」(서울: 중앙교회편, 1962), 67-68.

40) 최훈, 131.

에 들어갔다. 교인들은 평소처럼 주일과 수요일 밤에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설교는 없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자, 즉 이 문제에 있어서 순결성을 가진 집사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인도했다. 가슴을 치는 통회가 예배시 마다 계속되었다. 40일이 지난 후에 회중 전체가 하루 종일 금식했다. 성찬식은 다음 부활절 때까지 중단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통회의 눈물과 고백으로 실행되었다. 참여자들은 그같은 통회가 과거의 범죄를 구속(redeem)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상한 심령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봉천노회는 공적 참회의 내용을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이란 제목의 문서로 미북장로회 선교부에 알렸다.⁴¹⁾ 공적참회 기간이 끝난 후에 노회의 지도자들 4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문서는 다음과 같은 진솔하고도 성스런 회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형제 여러분의 동정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사랑에 제한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배교자 집단(an apostate branch of the Church)이라고 하여 거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만주에 있는 한인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연약함을 위해 슬피 통회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⁴²⁾

41) Austin Fulton, *Through Earthquake, Wind and Fire: Church and Mission in Manchuria 1867-1950* (Edinburgh: St. Andrew, 1967), 375-77.

42) Fulton, 377.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서 아마도 194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영문 주가 붙어있다.

이같은 참회의 모습과 순결한 영혼의 소식이 국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히 전달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⁴³⁾

봉천노회가 실행한 40일간의 공적참회권징은 출옥성도들만이 참회를 주장했거나 신사참배에 대한 일정한 기간의 공적참회권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경남노회의 “자숙안”과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회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북5도 연합노회가 결정한 2달간의 “근신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교회재건 원칙들”을 일컬어 “자책과 통회의 요청은 심판의 인상이 짙었고, 그것은 자기의 무한한 의의 결백을 전제하면서… 영광의 수난이 자량과 정죄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다”⁴⁴⁾라고 하는 민경배의 비난은 성립되지 않는다. “투옥되었던 분들은 그들의 출옥과 동시에… ‘정신성’을 과시하여 ‘출옥성자’로 자처하며 그 보수로 정신적 특권인 자고자만(自高自滿)의 도석을 선포하고 신경과민적인 부정공포증(不淨恐怖症)에 걸려 스스로를 세상에서 절연시켰다”⁴⁵⁾라고 하는 김재준의 주장은 논점일탈의 오류판단이다.

4. 조선기독교연합회와 남부총회

북한지역에서는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자들”을 완전히 거세했다. 대개 중산층에 속한 “민족 반역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역사청산”을 확실하게 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친일적인 기독교

43) 봉천노회는 동북신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서 해방 직후에 박형룡 박사가 얼마간 사역하던 곳이다.

44) 민경배, “한국교회 25년사,” 『한국교회연감 1972』 (서울: 한국교회협의회, 1972), 22.

45) “한국교회의 윤리생활,” 『신학논단』(1964, 6), 『장공전집』, 제1권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71), 157.

권층은 해방된 조국에서 변함없는 사회적인 지위와 영예를 누렸다. 한 때 “반민특위”가 조직되어 친일자들의 행각을 문제삼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 없었고, 미약한 역사청산 시도마저도 친일 기독교권자들에게 의해 저지되었다. 미군 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역사청산의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친일 중산층 기독교권자들의 힘을 이용했다.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앞잡이들, 기독교자들은 해방 후에도 아무런 참회없이 종로 네거리를 활보하고 다녔고, 한국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다. 신인공로할만한 백귀난행을 저지른 목사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신속한 맥락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한국교회 재건과 관련하여 맥락주의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해방된 땅에서 일본기독교를 정착시키려 했던 일에서 잘 드러났다. 앞에서 밝혔듯이 일본은 1943년 5월 5일에 한국장로교회를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개편시켰고, 1945년 8월 1일에는 모든 개신교파를 통폐합시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만들어 “일본기독교단”에 예속시켰다. 옥중과 토굴에서 가늘게나마 보존된 순수 한국 기독교의 불꽃을 제외하고는 한국교회란 것은 말살되었다. 이 때 김관식 목사가 통리로, 김용수 목사가 부통리로, 송창근 목사가 총무로 취임하여 활동했다. 일제와 친일자들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 창립된지 불과 15일만에 와해될 위기에 처해지자 당황한 친일자들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야망을 가졌다.

교단 통리 김관식은 1945년 11월 15일에 남한의 모든 교회에 목사 한 사람과 평신도 한 사람씩을 초청했다. 나중에 “조선기독교연합회”로 개명된 “남부대회”가 새문안교회당에 소집되었다. 이 조직은 두 번째 회의가 소집된 1946년 5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때 중직을 맡은 장로교계 인물로는 김관식, 송창근, 김영주

그리고 감리교계 인물로는 변홍규, 이규갑, 박연서 등이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감리교측 지도자들의 탈퇴로 결렬되고 말았다. 김관식은 “남부대회 조직이 마침내 와해된 것은 통합된 조직에 대한 불만이거나 또는 어떤 반대 때문이라기 보다는 구성단체들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공평할 것이다”⁴⁶⁾라고 미화시켰다.

김관식은 1947년 초에 쓴 글에서 자신이 “일본의 힘을 빌려” “지금까지 해방을 받아오던” 개신교 통합 운동을 해 왔으며, “교회 통합은 완성되었지만, 완성된 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나라가 두 지역으로 분할”⁴⁷⁾ 되었음을 안타까워 했다. 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 교회사가들은 그가 일제 치하에서 누렸던 권력과 명예를 얻고, 친일의 불명예를 교단 존속을 통해 상쇄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⁸⁾

자신들의 출세와 영달을 보장했던 일본이 패전하자 달리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 안녕, 명예를 연장시킬 수 있는 진지(陣地)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관식은 해방 후에 국제선교평론지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에 기고한 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교회는 태평양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았다”⁴⁹⁾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한국교회”란 한국교회가 아니라 일본교회였다. 그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46) Kwan Sik Kim,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36 (April 1947): 130-31.

47) 위의 글, 130-31.

48)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58*, 4 parts (N.p.: Mimeographed copy, 1968), 3, 2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343; 김양선, 50.

49) 위의 논문, 125.

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 기독교회가 아니었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등 전통적인 기독교 “심볼들”을 가진 종교 공동체로서의 제도, 조직, 기구 (a religious social organ)였다.⁵⁰⁾ 김관식의 “교회” 이해는 앞에서 언급한 흥택기의 교회 이해와 동일하다.

우리는 김관식, 송창근, 김영주 등이 서양세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지성인들이며,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해방 후 당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요, 조선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이사, 교수, 강사들이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지도력”은 해방 후 한국장로교회 재건의 방향과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영향은 1946년 6월 12일에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회집된 제 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총회”와 그 이후의 활동들을 통해 잘 드러났다.

이들은 친일 “교단”의 존속이 어렵게 되자, 맥락주의적 기질을 신속히 발휘하여 장로교단 복구의 뜻을 가진 남한의 노회들을 불러모아 “남부총회”를 개최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남북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 지자, 이듬해인 1947년 4월 대구제일교회당에서 개최된 제 2회 남부총회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기 전인 1942년 10월의 총회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제 1차 남부총회를 제 32회 총회로, 제 2회 남부총회를 제 33회 총회로 명명키로 했다.

“남부총회”와 이것의 계승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적법성을 가진 장로교 총회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 지역의 노회들이 배제된 총회였기 때문이다. 해방 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복

50)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같은 입장은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관을 따르는 조선신학교의 김재준의 교회관과 일치한다. 줄고, “교신교단설립의 교회론적 기초”를 보라.

구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이름으로 새로 조직한 “가설(假設)총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남부총회가 경남노회의 총대들을 배제한 것도 특기할만 하다. 남부총회는 “한 노회 전체의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⁵¹⁾

친일적 지도자들은 교회적 상황이 달라지자 다시금 맥락주의적 변신을 시도했다. 김양선은 “남부총회는 재야 교역자 배은회 목사를 회장으로 함태영 목사를 부회장으로 추재하여 신 총회를 조직했음으로 일견 교회의 주권이 일본 ‘교단’ 지도자들의 손에서 떠난 것 같이 보여졌으나, 양 목사는 실제의 목회자가 아니었음으로 교회의 주도권의 실제의 변화는 조곰도(원문 그대로) 없었다”⁵²⁾라고 기록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교수인 교회사가 김양선 목사가 이들의 행위를 “교권주의”란 시각으로 기술한 것은 “해방 직후 이들 친일자들이 긴 반성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였다”⁵³⁾라는 지적과 일치한다.

맥락주의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분열해 나가기까지(1954)의 한국 장로교회의 갈등은 이들과 이들로부터 교권을 쟁취하려는 보수적 장로교 지도자들 사이의 주도권 쟁탈전의 역사였다.⁵⁴⁾ 달라진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는 반성, 회개, 겸손이었지만, 그들은 교권확보에 여념이 없었다. 자신들의 교권확보와 “성스런” 위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공적참회를 주장하는 출옥성도들에 대해 매우 민감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모습은 만주의 봉천노회 지도자들과는 너무 달랐다. 나찌에 아부했던 독일교회 지도자들이 전후에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에 모여 참회를 위한 양심적 논의를 했던 것과는 너무

51) 한부선의 편지, 1947년 3월 17일, 제32회 총회록의 “총대명단”을 보라.

52) 김양선, 52.

53) 김양선, 50.

54) 김양선, 249.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대조적이었다. 독일 지도자들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치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나찌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여 투쟁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주도권을 맡기고 상당기간 공적 참회권징 기간에 들어간 자들. 그들의 공적 참회는 독일 기독교의 양심이었다.

김양선을 비롯한 몇몇 교회사가들은 “교회의 주도권이 여전히 그들의 손에 남아있게” 된 까닭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지도할만한 인물이 별로 없었기”⁵⁵⁾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관식도 해방 후에 “슬프게도 행정적인 경험이나 전문적인 기술능력 없었다”⁵⁶⁾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자조적(自嘲的), 자멸적(自蔑的)인 판단이다. 이들이 “긴 반성의 기간”을 갖는다고 하여 한국장로교회가 미아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독이며,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장로교가 지향하는 개혁과 전통에 따르면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영적, 신앙고백적인 유기체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극심한 박해가 거듭된 로마제국 하에서, 일제치하의 한반도의 옥중과 토굴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치 않는 저 무서운 공산치하에서조차 살아남았다. 헝가리, 폴란드, 중공의 지하에서조차 생명력있게 유지되어 왔지 않았는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신진학문을 배웠고, 영어를 구사할 줄 알고, 회의진행을 실수없이 하고, 교회의 조직을 강화할 줄 아는 것 등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력의 본질인가? 사도들과 속사도들, 익나티우스, 폴리갑, 히포의 어거스틴, 알렉산드

55) 김양선, 50.

56) “Christian Church in Korea,” 128.

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콘스탄티노플의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같은 세상적 지식과 행정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가? 교회를 외형적 조직이나 기구로 인식하면서 “행정력”과 “지도력”을 등식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개신교의 영적, 신앙고백적 특성과는 거리가 먼, 중세 로마교회의 성직자 계급(hierarchical order)의 특징이다.

새로 조직된 장로교 총회의 총무가 된 김관식, 조선신학교의 교수 송창근, 총회 “질차위원장” 김영주 등은 신학을 공부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당시의 교회 안에서 맹 활약하던 자들이다. 특히 김관식은 해방 후 총회 임원회가 선정하여 모 국제대회에 참석하도록 파견한 인물이다.⁵⁷⁾ 그러나 그들의 지도 아래 한국장로교회는 무엇을 했던가? 일제치하의 만행은 접어두고서도 김양선이 지적한 “교권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교회분열(1952, 1954), 일본 신도주의의 “예침”이란 신분 감추기, 장로교 치리회의 규칙 무시하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한 만행, 무정, 불법 등이었다. 한국장로교회가 사분오열이 아니라 백삼분삼실열로 나뉠 조짐은 그들의 지도 하에 있는 교회에서 이미 엿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필요로 했던 교회 지도자는 행정가, 외교술에 능한 자, 변신의 달인(達人), 정치꾼, 술수꾼, 기회주의자, “화인맞은 양심”이 아니라 진정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면서 대오각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증”이었다.

제 1회 남부총회는 옛 헌법(신앙고백,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채택하고 남북이 통일될 때 까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忠良有爲한 皇國(일본)의 基督教 教役者 養

57) 한부선 편지 1947년 3월 14, 17일: “54차 경남노회의 선언”, 「파수군」 7. (1950년 7월): 26.

成”⁵⁸⁾을 목적으로 세워진 조선신학교를 총회직영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공식 인정함과 동시에 이사를 임명했다.

김양선은 첫 남부총회가 “제 27회 총회가 범과한 신사참배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⁵⁹⁾라는 결정을 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총회록(제 32회)에는 그같은 기록이 없다. 이듬 해의 총회록(제 33회)에도 친일역사 및 신사참배 문제 청산에 대한 기록은 없다. “전국 특별기도회를 7월 7일부터 1주간 가지기로”⁶⁰⁾ 결의한 것은 있으나 이것이 역사청산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김양선은 다시 “남부총회는 그 결의(제 27차 총회)를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범과에 대한 진실된 통회가 없었으므로 제 34회 총회는 신사참배 결의를 재 취소하는 동시에 신사참배결의일에 해당하는 주일을 통회 자복일로 정하여 이를 실시하였고...”⁶¹⁾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총회록에는 그같은 기록이 없다. 이 총회는 김관식의 지도와 유권해석에 따라 “고려신학교 입학 지원자에게는 천서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모임이다. 총회록은 “해방기념주일 헌금은 각 교회에서 성의껏 실시하여 전도부 사업을 위하여 보내기로 하다”(p. 22)란 기록을 갖고 있다. 다른 기록들을 보아서 제 32회 총회(남부대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한 과거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는 모종의 논의가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총회록 기록이 잘못이 아니라면 그것을 결정했다는 김양선의 주장은 “픽션”(fiction)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김양선의 증거가 총회록 기록보다 더 확실하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반만년의 문화민족 교회 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서양세계에서 유학까지 하고 돌

58) “조선신학원 일람,” 「제29회 총회록」, 43.

59) 김양선, 52.

60) 「제33회 총회록」, 8.

61) 김양선, 53.

아은 “지도자”들의 지도 하에서 말이다. “취소”는 과거의 범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범과”(犯過), 즉 하나의 과오, 즉 절차상의 착오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 참회, 죄의식, 통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차분히 회개하기 보다는 이민족의 압제로 어쩔 수 없이 굴종했던 과거지사의 악몽을 얼른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7-8년간에 걸친 엄연한 역사적 범죄 사실을 참회치 않으려는 배후에는 죄(guilty)와 실수 혹은 범과(mistake)에 대한 개념 구분이 명확치 않은 동양의 “수치문화”의 영향 탓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요인 탓으로 돌리고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해방 후 신사참배에 대한 장로교회 지도자들과 친일 선교사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는 1947년 3월 초, 총회(제 32회)의 임원회 때 일어났던 사건이 보여준다. 이 모임에는 관례적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동석했다. 미국에서 귀환한 출옥 성도 한부선 선교사도 참석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신사참배를 옹호하는 지도자들이 많으니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항의서가 24개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되었다. 안전을 다룬 총회 임부원 및 선교사들은 한부선의 지적대로 “친일 인사들”⁶²⁾이었다. “그같은 항의서는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라는 비난과 함께, 임원 중 한 명이 “주기철과 다른 순교자들을 성 프랜시스 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출옥성도들은 자신들을 신사참배자들 보다 더 거룩한 자로 여기는 것은 망상”이라고 역설했다.

사회를 맡은 총회장은 문제의 성격을 옹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항의서는 교회 안에 아직도 신사참배 옹호자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임원 중 한 명이 즉각

62) 한부선 편지, 1947년 3월 14일.

답했다. “지난 해 총회가 과거의 총회 결의를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총회장은 다시 “한국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하기로 결정하고 다수의 목회자들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설교하고 실행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남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다른 임원 한 명이 “신사참배를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장로교인들이 상회의 결정에 복종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상회의 결정이라고요?” 상회의 결정이란 신사참배 시행안을 통과시킨 제 27차 총회의 결정을 의미한다. 대화가 흥분된 논쟁으로 치닫자 캐나다연합교회의 선교사 서고도(William Scott)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한부선은 “만약 대화가 계속되었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람페(Lampe), 서고도(Scott), 언더우드(Underwood)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을 것이다”⁶³⁾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부선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아직도 신사참배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통탄하면서, 신사참배를 범한 목회자들에게 2달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징역을 요구해도 그것은 오히려 가벼운 권징일 것이라고 썼다.⁶⁴⁾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일본기독교단은 종전 후에도 “무사(武士) 기독교”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냈다.⁶⁵⁾ 통리 토미다 미수라는 “천왕께서 종전을 선언하신 결정에 따라... 우리는 패전을 충분히 여

63) 한부선의 편지, 1947년 3월 14일, 4-6.

64) 위의 편지.

65) 일본에서는 우찌무라 간조의 지도 하에 있던 무교회 그룹 가운데서 성경을 근거로 신도주의에 항거한 사람이 있다. 우찌무라 간조의 친구인 아사미 센 사구였다. 근본적 신앙을 가진 성결교회의 몇몇 교인들도 반대했다. 39개처 성결 교회가 이 문제로 문을 닫았고, 목회자들이 감금되었으며, 교회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그들이 출옥 후에 몇몇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살해되었거나 출옥 즉시 사망했다. 그러나 일본기독교단에 속한 자들은 항거를 한 바 없다.

기며, 전시에 우리의 애국적 봉사에 진지성이 결여되었던 것을 참회합니다”⁶⁶⁾ 라는 피기한 “참회고백”을 했다. “일본기독교단”은 신도주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교단”은 1967년에 “제 2차대전 동안의 책임에 대한 고백”⁶⁷⁾ 이란 문서를 채택 (1966, 오사카 총회), 발표했다. 교단 내의 젊은 목회자들의 권위로 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 2차대전 동안 교단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실수(mistake)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신앙] 동료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인 교회는 정부의 군사적 목적에 동조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의 표준에 따라 조국의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비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돕고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교단의 이름으로 국내외에 성명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사실인 것 처럼 우리 교회도 국가와 함께 죄(sin)를 저질렀습니다. “파수군”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수행을 소홀히 했습니다. 가슴아픈 고통과 더불어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66) Kun-Sam Le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6), 151, 재인용.

67) Lukas Vischer, ed., *Reformed Witness Today* (Bern: Evangelische Arbeitsstelle Oekumene Schweiz, 1982), 64-65.

눈여겨 볼 것은 이 고백문이 무엇에 대한 용서를 구했는가 하는 것이다. 전쟁부역과 전승기도를 교회의 이름으로 성명한 것에 대한 사죄였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이라든지, 신사참배가 계명을 어기는 죄라든지,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다든지, 이교신을 숭배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든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라든지, 배교를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언급이 없다. 일본기독교단장 토미다 미수루가 친히 한국에 까지 와서 한국목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강권한 것은 신사참배 시행이었다. 1938년 6월 30일, 12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평양 산정현교회 당에서 행한 그의 신사참배 지지 강연회에 억지로 참석했던 주기철 목사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당당하게 일어서서 “우리는 당신의 많은 지식은 존경하지만 신사참배는 받아들일 수 없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이오”⁶⁸⁾라고 항거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제차 경찰에 연행되어 끝내 순교했다. “교단”은 지금도 “황도기독교”(皇道基督教, Imperial Way Christianity)로서의 특징과 이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단”으로부터 1951년에 환원하여 재조직된 일본그리스도교회는 1990년에 국가신도(state shinto)의 종교적 본질을 인식하여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잘못과 교회가 강압에 동참한 것을 선언하고 용서를 구했다. 1990년 총회가 채택한 “고백과 사죄문”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신을 믿는 신앙체계”(the system which made a god of that which is not God)를 받아들였고,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저지른 문제를 바로 간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세운 신사 앞에

68) Bruce Hunt, “Trails Winthin and Without,” *Presbyterian Guardian* 29.3 (February 1960), 34(37-40).

절을 하도록 한 일에 대해 신앙의 관점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을 고백한다는 내용이다.⁶⁹⁾

일본기독교개혁교회회는 제 45회 대회 결의로 1991년 10월에 “죄 고백과 사죄문”을 채택하여 고신교단 총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신사참배의 종교적 본질을 언급을 하면서 일본과 일본교회가 한국인들에게 칠탈(七奪: 국왕, 국토, 경지, 국어, 이름, 국민, 생명을 탈취한 죄)을 범했고, 침략전쟁에 협력하도록 했고, 신사참배를 행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를 구했다.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우상숭배의 죄”였음을 선언했다.

당시 일본교회는 국가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천황을 현인신(現人神: 사람으로 나타난 살아있는 신)시 하는 국가 신도의례를 거절하지 못한 채 결국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귀 국가의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억압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참이웃으로서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습시다….

일본의 이러한 침략과 불합리한 정책 중에서 귀 국가의 교회에 대하여 범한 가장 중대한 죄는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이러한 죄가 범해졌을 때, 일본교회는 그것을 반대하기는커녕, 귀 국가의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에 복종하도록 설득, 강요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혐오스런 행위가 그리스도 교회의 이름 하에 행해진 사실을 까달으며 교회의 머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귀 국가의 교회에 대하

69) 일본그리스도교회, “Statement of Confession and Apology for Our Sins of Concurring in Forced Worship at Shinto Shrines in Korea,” 1990, 필자특별수집.

여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바랍니다.⁷⁰⁾

이 고백 및 사죄문은 박해 속에서도 출옥성도들이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을 지킨 일과 고려 신학교를 통한 그같은 신앙계승, 그리고 신도의식(神道儀式)에 대한 새로운 천황의 즉위식과 대상제(大賞祭)가 행해지고 구 일본에의 회귀 경향이 일층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그리스도교회 대표자들이 “참회문”을 들고 1991년 10월에 한국교회에 사죄를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한 한국교회협의회(KNCC) 위원들은 넉죽 일본교회의 사죄청원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한국교회협의회 구성 멤버는 유감스럽게도 신사참배 범죄에 대한 공격참회를 거부했고, 신사참배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교회들이다. 오히려 신사참배로 인한 희생을 “정통주의 신학의 희생자들” “어리석은 희생”이라고 일컬고 모독한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교회들이다. 더욱이 그 중 장로교 회원교회는 참회를 외치는 자들을 교단 밖으로 축출했던 교회였다. 특히 1960년대에 이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애써 신사참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수진수난(守眞受難) 성도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근본주의 신학의 희생자들” “초(超)근본주의자들”이 “단순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조심성없이 함부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했으며,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의한 불필요한 희생자들과 비난했다.⁷¹⁾ 신사참배 항거자들을 “어리석게도” “성경의 독선적인

70)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회록(1991)」, 54-55에 실려있다.

71) 김재준, “한국교회의 민주주의 참여와 선교,” 「기독교사상」 (1960. 6): 29-30; 김재준과 백낙준, “한국역사와 기독교”에 관한 대답, 「기독교사상」 (1972. 6): 34-35; 정하은, “Eighty Years History of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45;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사상」 (서울: 대한

해석”으로 인해 그같은 불행을 겪었다고 하는 주장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⁷²⁾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출옥 성도들(고신)을 축출하고, 기독교장로회가 분열해 나간 후에 모인 제 38회 총회(1954)는 과거의 신사참배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 위원회가 작성한 “취소성명서”는 제 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정이 “일체의 강압에 못이긴 결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이를 취소”⁷³⁾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의 성찬식 전 한 시간과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시간(5시-8시)에 통회자복하며 “사죄함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다.

“취소”라는 결정과 참회과정으로 설정한 방법이 과연 이상승배, 배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백귀난행에 대한 참회로서 적합했는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동역자들을 계명, 목회직을 박탈하고, 가족들을 내쫓았으며, 그들을 학대한 죄를 참회하는데 적절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장로교 치리회의 원리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부합되는가 등에 대한 교회론적, 치리회적, 신앙양심적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오늘 이상 앞에 절하고, 귀신을 예배하고, “가미 위에 다른 신은 없다”는 “신앙고백”과 더불어 이교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인하며, 동역자에게 탄핵을 저지른 지도자나 교회가 있다면 과연 두어시간의 참회기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국장로교인들

기독교서회, 1967), 139; idem.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54-55; 강릉원 “한국교회 혁신의 첫 디딤,” 「기독교사상」 (1962. 10): 24.

72) 예컨대, “김린희 예심종결서,” 평양지방법원, 안용준, 「태양신과 싸운이들」 상권(부산: 칼빈문화사, 1956, 295. 그 외의 한상동, 주남선, 손양원 등등의 예심종결서를 보라.

73) 「제39회회록」, 263.

은 거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라고 기도한다. 매일 새벽기도회로 모여 참회한다. 이것과 제 38회 총회기간 동안의 1시간 그리고 하루 새벽기도 시간의 참회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신사참배 청산의 문제는 총회가 어떤 학교를 교단의 신학교육 기관으로 승인했다가 취소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취소,” “무효화,” “철회” 등의 결정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전범자(戰犯者)이 과거의 전쟁 결의를 전쟁 후에 “취소”한다고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간음 죄를 범한 여인이 과거의 범죄 결심을 사후에 취소한다고 행음의 죄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취소” 결정은 과거의 결정을 가벼운 실수, 행정적 착오, 범과(犯過) 정도로 여기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명백한 자승자박의 의미를 지닌다. 김양선이 지적한 대로 “총회가 신사참배의 범과를 통절히 누우치지 못했다는 증거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⁷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였다. 십계명의 제 1, 2, 3계명, 그리고 1907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채택한 신앙고백인 “십이신조”의 제 2항을 거스리는 배교였다.⁷⁵⁾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저지른 백귀난행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겼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조차 반드시 다루어어야 할 신인공로할 범죄였다. 「장로회 헌법」은 치리회로서의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개혁주의 전통은 참 교회의 세 번째 표지인 권징의 신실한 실천을 가르친다.⁷⁶⁾ 칼빈이 가르친

74) 김양선, 53. 김양선은 이 결정을 “일부의 교권주의자의 자기 명예를 위한 쟁쟁어에 불가한 것”으로 본다.

75)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위원회, 1934), 2.

76) 「경남노회진상보고서 및 진정서」; 김응도, “대한교회의 현상과 장래(2),” 「파수군」 20 (1951, 9), 32; 오병세, “80년대 교신의 신학적 전망,” 「개혁신앙」(1980, 6), 8; 줄고, “교신교단설립의 교회론적 기초,” 171.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근육”을 “서로 결합시키고 각각 자신의 위치에 있게”하는 일이다. “가정, 클럽, 팀, 사회 등 어느 집단에서도 권징은 필수적인 것이거늘, 하물며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립하신 신성한 사회(교회)이겠는가!”⁷⁷⁾ 칼빈은 권징을 폐기하거나 그것의 실행을 주저하는 것은 고의적으로든지 아니면 무지 때문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교회의 분해를 조장하는 것이며, 권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의 영예를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과거사 청산”에 관심을 가진 세상과는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지만 무질서한 공동체가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감한 개혁과 양심적인 참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감으로써 무질서와 분열로 치달는 한국장로교회의 불행한 전통을 남겼다. 장로교 신학과 치리회 규칙에 어울리는 일정기간의 어떤 공적인 절차를 밟아 “배움을 입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참회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범죄를 정직하게 사죄했다면 일본 신도주의 “애첩”이라는 신분을 청산하고 한국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찌 정부에 협조했던 빌헬름 뉘펠러(Wilhelm Niemoeller)가 1962년에 “개신교의 저항”(Evangelischer Widerstand)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아래와 같은 고백문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침묵할 뿐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말을 한다면 다니엘서(9장)를 펼쳐 거기 쓰인 말

77) 「기독교강요」 4, 12, 1.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 85을 참고하라.

숨을 한 마디 한 마디씩 읽으며 다니엘 선지가 기도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뿐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치욕을 받음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⁷⁸⁾

(본고는 “경남지방 교회재건과 개혁신앙”으로 이어진다)

78) Wilhelm Niemoeller, *Wort und Tat im Kirchenkumpf* (Munche: Chr. Kaiser Verlag, 1969), 268, 김영재, 240 중인.

대각성 운동의 원동력에 대한 논쟁

양 낙 흥

18세기 중엽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반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예일 대학의 미국 교회사 교수 존 버틀러(John Butler) 같은 학자는 “대각성”(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말이 18세기 미국 종교 생활의 성격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대각성이 독립 전쟁 이전의 미국 교회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설에 의하면 대각성은 “18세기 미국 종교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미국 혁명의 열쇠”이며 “혁명 전 미국 사회의 성숙에 있어 주요 분수령”이며 “인도주의 정신을 불러일으켰고” “평등권 사상을 격려”했으며 “민주주의적 정서를 자극”했다.²⁾

- 1) Jon Butler, “Enthusiasm Described and Decried: The Great Awakening as Interpretive Fic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9 (1982), 305.
- 2) Rhys Isaac, “Dramatizing the Ideology of the Revolution: Popular Mobilization in Virginia, 1774 to 1776,” *William and Mary Quarterly* 33 (July 1976), 357-85; Rhys Isaac, “Preachers and Patriots: Popular Culture and the Revolution in Virginia,” in *The American Revolution: Exploration in the History of American Radicalism*, ed. Alfred F. Young (DeKalb, III, 1976), 125-56; William G. McLoughlin, “Enthusiasm for Liberty: The